손흥민, 새해 첫 경기서 리그 8호골 축포

시즌 11호골 · 도움 1개…5G 연속 공격포인트
토트넘, 카디프 시티에 3-0 승리 리그 2위 복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왼쪽)이 2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영국 카디프의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카디프 시티와의 2018~2019 EPL 21라운드에서 리그 8호골을 기록했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토트넘)이 2019년 새해 첫 경기에서 축포를 터뜨렸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2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영국 카디프의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해 첫 경기 카디프 시티와의 2018~2019 EPL 21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2-0으로 앞선 전반 26골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앞선 가운데 손흥민은 전반 26분 케인의 패스를 골로 연결했다.

페널티박스 오른쪽 부근에서 골문 먼 곳을 노린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24일과 27일 에버턴, 본머스와의 18·19라운드에서 연속으로 멀티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2경기 만에 리그 8호 골을 신고했다. 시즌(컵대회 포함) 11호 골이다.

지난달 20일 아스날과의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에서 골맛을 본 손흥민은 24일 에버턴전(2골 1도움), 27일 본머스전(2골), 30일 울버햄트전(1도움)에 이어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사냥에 성공했다.

도움도 1개 추가했다. 전반 12분 역습 기회에서 에릭센의 골을 도왔다. 오른쪽으로 돌파한 손흥민은 중앙으로 쇄도하는 에릭센에게 정확하게 패스해 골의 발판을 마련했다.

리그 5호 도움이다. 패스한 공이 수비수 몸에 스쳐 도움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하프타임에 분석을 통해 도움으로 인정했다.

손흥민은 후반 31분 올리버 스킵과 교체됐다. 76분을 소화했다.

토트넘은 3-0 완승을 거두며 20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 당한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16승(5패 승점 48)째를 신고하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체스터 시티(15승2무3패 승점 47)를 끌어내리고 다시 2위로 복귀했다.

한편 토트넘은 5일 리그2(4부) 소속 트랜미어 로버스를 상대로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64강전)를 치르고, 나흘 후에 첼시와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을 갖는다.

뉴시스

외신들도 찬사 "확고한 입지 굳혔다"

미국 NBC "매서운 공격 이끌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새해 첫 경기부터 골을 터뜨린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에게 찬사가 쏟아졌다.

영국 매체인 이브닝스탠더드는 '손흥민은 11월 A매치 기간에 휴식을 취한 이후 쥬골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면서 '한때 루카스 모우라와 에릭 라멜라에게 밀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토트넘의 DESK 라인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다'고 전했다.

'DESK'는 토트넘의 주전 공격진인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 케인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별칭이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골 아시안컵에 출전하게 되면 토트넘은 그를 더욱 그리워할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미국 NBC스포츠도 '손흥민이 전반부터 계속된 토트넘의 매서운 공격을 이끌었다. 스코어를 3-0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1골 1도움' 손흥민 "골 더 필요했지만 승점 3점 만족"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왼쪽)이 2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영국 카디프의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카디프 시티와의 2018~2019 EPL 21라운드에서 슛을 시도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승점 3점을 따낸 것에 대해 만족했다.

손흥민은 2일 오전 2시 30분(한국시간) 영국 카디프의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올해 첫 경기 카디프 시티와 2018~2019 EPL 21라운드에서 선발 출장해 1골 1도움을 올렸다.

전반 12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골을 도운 그는 2-0으로 앞선 전반 26분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팀도 3-0으로 완승, 지난달 30일 20라운드 울버햄튼전 1-3 패배의 아쉬움을 달랬다. 시즌 16승(5패)째를 거두며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2위로 재도약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에릭센과 함께 한 영국 스포츠 언론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의 점유율은 70%였다. 그만큼 압도적이었다. 경기 내내 매서운 공격을 펼쳤기 때문에 더 많은 골이 필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승점 3점을 따낸 것에 대해선 만족감을 보였다.

손흥민은 "지난 주말 울버햄튼전에서 패배하며 모두가 실망했다. 그러나 카디프 시티를 상대로 모든 선수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 다소 이른 골이 터지면서 선수들 모두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오늘 경기는 우리가 3점을 따낼 만한 경기였다"고 총평했다.

'황제' 페더러 VS '여제' 세레나 첫 혼복 대결…페더러가 웃었다

호프먼컵 조별리그서 맞대결…페더러 조가 승리

1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호프먼컵 조별리그 혼합복식 경기에서 맞대결하는 로저 페더러(사진 오른쪽)와 세레나 윌리엄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8·스위스)와 '여제' 세레나 윌리엄스(38·미국)가 최초로 혼합복식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미소를 지은 것은 페더러였다.

페더러와 윌리엄스는 1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호프먼컵 조별리그 혼합복식 경기에 나섰다. 페더러 조가 세레나 조를 2-0(4-2 4-3(5-3))으로 꺾었다.

호프먼컵은 매년 1월 초 호주에서 열리는 이벤트 대회다. 한 나라에서 남녀 선수 한 명씩 팀을 이뤄 출전, 남녀 단식과 혼합복식 경기를 치러 승부를 가린다.

페더러는 벨린다 벤치치(22)와 한 조를 이뤄 스위스 대표로 나섰고, 윌리엄스는 프랜시스 티아포(21)와 미국 대표로 함께 나섰다.

1981년생 동갑인 페더러와 윌리엄스는 남녀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둘의 메이저대회 단식 우승 횟수를 합하면 무려 43회다. 페더러가 20회, 윌리엄스가 23회 우승했다. 페더러는 메이저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윌리엄스는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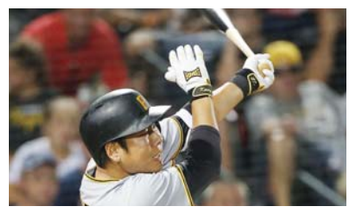
경기 후 페더러는 "윌리엄스의 서브를 받을 때 긴장됐다. 사람들이 왜 윌리엄스의 서브에 감탄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정말 멋진 서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윌리엄스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평소 존경하는 선수와 대결하게 돼 정말 나의 선수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만한 경기였다"고 전했다.

페더러와 윌리엄스는 경기를 마친 뒤에는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강정호, 새로운 타격폼으로 새 시즌 나선다

SNS에 훈련 영상 공개



음주운전 파문을 딛고 재기를 노리는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새로운 타격폼으로 새 시즌에 나선다.

강정호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새해 인사를 했다. 영상 2개를 올렸는데 하나는 타격 훈련 영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트레이너와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영상이다.

타격 훈련 영상에는 "새로운 스윙으로"라는 글을 덧붙였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방망이를 잡은 양 손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왔다. 상징과도 같았던 레그킥은 작아졌다. 전보다 다리를 조금만 들었다 내리면서 타격했다.

빠른 공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층 간결해진 타격폼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2016년 피츠버그의 중심타자로 활약한 강정호는 2년간 22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3(739타수 202안타) 36홈런 120타점 8도루 105득점에 장타율 0.483, 출루율 0.355를 기록했다.

한편 피츠버그 구단은 올해 걸려있던 구단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강정호를 자유계약선수(FA)로 풀어준 뒤 계약기간 1년, 총액 55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